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개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마다 새로워지며 남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강으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6호 2013년 10월 2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종교개혁주일...자기개혁부터!

###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496주년 맞아 종교개혁 의미 재조명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었다. 종교개혁을 향한 기나긴 고난의 첫걸음이었다. 루터의 항의문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로 지속돼야 한다"는 제1조를 시작으로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제95조로 끝을 맺는다. 처음이 참회, 마지막이 고난이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의 발자취다. 천지창조 자체가 카오스를 깨뜨리는 코스모스의 혁명이었고, 모세의 이집트 탈출은 모

든 해방운동의 선구가 됐으며, 뭇 예언자들의 열정은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영적 개혁의 목표로 모아졌다. 예수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도 종교의 사슬을 끊고 '오직 진리만이 인간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으로 영성의 개혁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렸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거대한 두 산맥을 정복하는 개혁의 여정에 다다랐던 것이며, 요한 계시의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을 최종적으로 개혁하는 성경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적인 개혁운동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뜯어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요란하게 뒤 흔들며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혁(Reformed)"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점이다.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의 뜻을 내포하는 단어는 요즘에 쓰이는 있는 갱신(Renew) 혹은 변혁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는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 했던 성경 진리와 달라졌을 때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 교회(Reformed Church)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명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늘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신학의 변질과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실상 위기에 봉착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①배금주의, 상업주의 ② 혼합주의 ③형식주의 등으로 인해 개혁정신이 왜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타락을 했기에 불신자들이 하여금 믿음에 대한 실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으며 개혁신앙을 확인해보고 크리스천들의 자기개혁 점검이 촉구된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마다 맞는 종교개혁주일에는 "개혁을 구호가 아닌 삶의 진솔한 고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절기가 된다.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정신을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정직한 자기반성 즉 참회와 회개를 통해 내가 말씀과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된다.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한 크리스천의 진실한 신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 "고치고 개혁" 하는 뉴욕교협 기대

### 17일 정총, 회장 김승희 목사, 부회장 이재덕 목사

소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구성원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듭된 성장과 성숙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은 바로 질문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일까? 다음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 부회장에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왼쪽부터 이재덕 목사, 이주익 장로, 김승희 목사, 김종훈 목사(이임 회장), 김영철 목사, 허윤준 목사.

3과전을 벌였던 뉴욕교협 부회장에 이재덕 목사가 당선됐다. 회장은 부회장 김승희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17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 제 39회 정기총회가 총대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김승희 목사는 "목사회 부회장부터 4회의 선거를 치르면서 교협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고치고 개혁하는데 도와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임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시작한 39회기를 마치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어려울 때지만 사랑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 임원들과 실행위원

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승희 목사의 인도로 기도 송병기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말씀 한세원 목사, 축도 이문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세원 목사는 "아름다운 관계"(빌 4:1-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첫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물질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지면 삶은 공허하며 무질서해진다"고 말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름다운 관계 3가지는 첫째 서로가 알아주는 관계, 둘째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셋째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라며, "이 3가지 관계를 잘 맺어 뉴욕교협이 새 힘을 얻고 뉴욕지역에 빛을 발하는 분이 되고 덕이 되는 기관이 되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디지털 세상, 말레니엄세대의 놀이!



3면

동성애, 세계성공회 갈등 증폭시켜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경건주의(Pietism)와 현대 선교에 대한 소고(1)  
박시경 목사(그레이스신학교 교수)

## 11월 3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3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2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 세계 청년 선교 축제

## 지킴 DEC. 25<sup>TH</sup>-28<sup>TH</sup>

### WWW.GKYM.ORG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이사야 40:3

**MAIN SPEAKERS**

스티브 더글라스 CCC 총재	유은성 CCM 가수	헨리 오롬비 로잔운동 체어맨	박형은(JIM-BOB PARK) 동양 선교 교회 담임 목사	크레이그 오트 트리니티 선교교 교수	최마크 IN2 교회 담임 목사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공동 설립자	김정화 배우	김은열 (JOEL KIM) DEVOTION 교회 목사	티모티 레니악 골든케널 교수	스타펠드 크리스찬 찬양밴드	K.S. SAM C국 선교사, 교수
--------------------	---------------	--------------------	-------------------------------------	------------------------	---------------------	----------------------------	-----------	----------------------------------	--------------------	-------------------	------------------------

주관/주최: GKYM INTERNATIONAL  
날 짜: 12월 25일(수) ~ 28일(토)  
장 소: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대 상: 18세이상 청년 및 대학생

등록비 : **숙식포함**

1차 마감: 10월 31일까지 \$200  
2차 마감: 11월 30일까지 \$250  
3차 마감: 12월 23일까지 \$300

등록문의: GKYM USA  
Tel: 917-929-GKYM(4596)  
e-mail: rochestergkym@gmail.com  
\*온라인 등록 www.gkym.org





### 시론

#### 희망만은 버리지 말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최근에 한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석좌교수로 위촉된 워튼 몰트만 교수는 독일에서 출생했는데 독일군으로 징병되어 2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와 영국에서 전쟁포로로 3년간이나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는 1964년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후 세계 기독교계에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며 전후에 절망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신학은 세계대전 후 초점을 잃고 헤매던 서양사회에 새로운 기독교적 희망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 한국의 민중신학에도 영향을 끼쳐 현대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이 있다.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이다." 그는 종말론에 근거한 행동주의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신학의 전체 요지를 "교회는 미래의 희망(예수그리스도의 재림)에 근거해 현재의 사회변화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파악한 하나님의 실체는 오늘 우리를 위해 함께 고난당하는 분이시다. 그의 책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 보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유명한 엘리 비젤의 책을 인용하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치 친위대가 수용소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서 청년 하나와 어린 소년을 교수형에 처했는데 청년은 일찍 숨을 거두었으나 몸무게가 가벼운 소년은 1시간 반이나 버둥대지만 죽지 않으며 괴로워했다. 그 때 뒤에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고 조용히 혼잣말로 물었다. 그러자 엘리 비젤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은 저기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지 않느냐?' 이 일을 경험하면서 엘리 비젤은 하나님은 죽었고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몰트만은 이 일에 대해 해석을 달리한다. 그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이유라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고통당하는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 몰트만 교수의 주장이다. 그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행한 연설 중에 가슴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겨준 말 한 마디. "삶에는 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교회도 종종 위기에 처하고 고통을 당한다. 때로는 위기가 꼭 짝어서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영겨진 실타래 같은 곤혹스런 문제들도 있다. 그러기에 교회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이 교회 안에 다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이며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와 머리를 맞대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더 많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게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권하기도 한다. 편하기를 할 것이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삶에 보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보람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역을 감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온갖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길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될 때에 가을의 알곡처럼 열매를 거두는 날이 기어코 오리라.

# 디지털 세상, 밀레니엄세대의 놀이터!

## 바나리서치, 밀레니엄과 첨단디지털 기술 통한 신앙형성 설문관계 발표

새벽 1시에도 조시 로빈은 바쁘게 일하고 있다. 하루중 언제라도 로빈은 인터넷과 스카이프로 대화를 나누고 작업 현황을 트위터로 통지하거나 그의 개인 아이폰으로 최첨단 모바일 티켓 발권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직장 내에 와이파이가 없어서 그의 개인 컴퓨터를 쓸 수 없다는 점이 그를 당황스럽게 한다.

로빈은 회사에서 지급한 블랙베리를 그냥 둔채, 요금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아이폰을 사용한다. 만약 당신이 로빈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는 밀레니엄 세대로 알려진 차세대 노동력이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따라다녔다. 올웨이즈-온(Always-On) 세대, Y세대, 디지털 태생(Digital Natives) 등이 그 예다. 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며, 그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 역시 다르다. 또한 그들이 미래에 당신의 회사를 운영할 주체다.

바나리서치는 이처럼 신앙 영역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들의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를 열고 도움을 받는 밀레니엄세대와 디지털 기술과의 상관관계를 설문 조사했다(How Technology is Changing Millennial Faith). 이제는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주일성수처럼,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는 영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1981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8,54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많다. 그들은 교회공동체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욕구까지 들어줘야 한다.

로빈 같은 밀레니엄 세대는 좀 더 나이트 세대처럼 주말과 근무시간 이후에는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부합하는 기술을 원한다.

실제로, 그들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하



는 밀레니엄세대는 강단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설교에서 사실 파악을 디지털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밀레니엄세대는 놀람게도 38% 정도가 실시간으로 내용이나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을 통한 신앙 습관 또는 신앙 체질 변화는 블로그나 텍스트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성경공부나 구역 모임을 위해 일정 공간에서 모여 토론하고 기도하는 것 대신, 블로그나 카페를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 신앙 문제를 논의하고, 텍스트를 통해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결국 밀레니엄 세대는 삶의 의미 자체를 각자 정의한다. 따라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바로 '빠른 속도' '소셜네트워킹' '협력' 등을 통해 신앙 영역을 넓혀 간다는 점이 바로 바나리서치가 주목한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다. 특히 이들의 소셜네트워킹은 계속 관련 서적들이 출간될 만큼 이미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엄 세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커피 자판기 옆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면, 밀레니엄 세대는 트

### '빠른 속도' '소셜네트워킹' '협력' 통해 신앙영역 넓혀 실시간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상담 장치마련 급선무

고, 남이 시키는 것을 수용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보통 그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배배, 무거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을 쓰고 자란 나이트 세대들보다 더욱 기술의 힘을 잘 안들이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와 이전 세대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통방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화를 걸고, X세대는 이메일을 쓰며, 밀레니엄 세대는 소셜네트워킹과 인스턴트 메시징 그리고 영상 채팅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나이 든 할아버지가 밀레니엄 세대 손주들로부터 PC를 통해 영상 통화를 받게 되는 경우, 긴장이 증폭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태생"으로도 불리는 밀레니엄세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디지털을 통해 접속하게 된다.

실제로, 성경을 디지털로 읽는 경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성경 무료앱인 유버전(YouVersion)에서부터 BibleGateway.com은 밀레니엄들이 선호하는 크리스트교 포털 사이트이다. 따라서 70%의 밀레니

엄들이 스크린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밀레니엄 중1/3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있어, 디지털을 통한 성경읽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온라인은 이들에게 적합한 신앙공동체를 찾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현재 56%의 교회에 다니는 밀레니엄세대도, 온라인을 통해 교회들을 먼저 소망한다. 그래서 거리에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소나 특징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교회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 역시 온라인에서 해결한다. 누구에게 물을까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식당이나 신앙 문제를 검색창에 올리면 몇 초 내에 적절한 응답이 주어진다. 결국 59%나 되는 크리스천 밀레니엄들이 검색창을 통한 영적, 신앙적 도움을 받고 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30%의 밀레니엄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밀레니엄세대는 더 나아가서 디지

털을 통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까지도 점검한다. 이제 더 이상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밀레니엄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밀레니엄들에게 신앙은 상호적인 대화형으로 형성되어진다. 밀레니엄들은 성경 대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교회의 리더가 말하는 내용들을 실시간 점검한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4%나 되

위터나 메신저 등 '온라인 휴게실'에서 휴식한다. 사회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도 '즉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결론으로,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킨너맨은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영역에서도 사역을 감당할수록 준비하고 대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바로 밀레니엄세대 교회를 이끌 수 있게 하는 장기적 계획이라고 말한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안내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유능하고 창의력을 갖춘 실력 있는 리더로 가는 첩경"

Midwest Leadership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워킹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 본교소개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ILA) 회원대학교로서 전세계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음.

-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CL 48 Credit Hours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 관계없음)  
2. 각 전문분야 종사자 (영관급 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상, 부장급 경력 5년 이상인자, 목사, 선교사, 장로, 단체인, 여성전문인, 체육지도자, 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3.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학력제한 없음

\*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절차

1. 직장파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On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위취득 가능.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취득 가능.

###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Apply Now!  
E-mail to Midwest

문의 및 상담: 리더십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손동원교수 [covenant@unitel.co.kr](mailto:covenant@unitel.co.kr)

### Midwest 동문

- 강병도 박사 (장신대학교 설립자, 전, 총장)
- 구우희 박사 (전, 속대 총대 학장)
- 권순일 박사 (보이스 대표)
- 김근용 박사 (Midwest 총동맹회장)
- 김성진 박사 (광운대 교수, 한국총동맹협회장)
- 김두성 박사 (영남 총동맹, 안양 총동맹 회장)
- 김영민 박사 (가나안 총동맹 회장, 교장)
- 김소영 박사 (한예총연합회장, 대전대 교수)
- 노병진 박사 (전, 대학, 전, 나사렛대 부총장)
- 박우승 박사 (한울고 교장, 전, 로타리총재)
- 박종호 박사 (한국유희문화재단 대표)
- 박은진 박사 (대한총동맹 대표, KIMC 임원)
- 사정숙 박사 (안동대 미대교수, 미술평론가)
- 서정숙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 염영준 박사 (GGU 명예총장, 전, 기교협대표)
- 오세영 박사 (성신대 교수, 전, 경영대학장)
- 유종환 박사 (미국전(사)대표, KIMC 임원)
- 윤학원 박사 (전, 중앙총대 학장, 교직원협의회 이사장)
- 윤영기 박사 (예총 총장, 전, 예장(개) 총회장)
- 이상진 박사 (KIMC 발행위원장)
- 이상혁 박사 (안양 생원교회 이사장)
- 이영희 박사 (중앙총동맹, 전, 나사렛성경교단 권독)
- 이태원 박사 (전, 영동고등학교 교장)
- 임용아 박사 (재태대학교 유대 교수)
- 정근기 박사 (예장(백석) 총동맹회장)
- 정근호 박사 (전, 과거장교, 전, 호서대, 명지대총장)
- 정종필 박사 (전, 고신연수사, 사정, 전, 기독교보서장)
- 최영민 박사 (전, 순복음신학교학장)
- 최병두 박사 (전, 예장(개) 총회장)
- 최성규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사업회 회장)
- 최필식 박사 (KIMnet 사무총장, KIMC 사무총장)
- 임도순 박사 (전, 바울교회, 보성침례 선교사)
- 홍영희 박사 (안양 생원교회)



#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 동성애, 세계성공회 갈등 증폭시켜

## 월드, 영국성공회 동성애논쟁에 대한 보수진영 우려 보도

동성애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성공회 교회(Anglican Church)는 최근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한 동성애 부모가 자녀의 세례 증서에 자신들을 부모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영국 와사스의 동성애 부부 아이미와 빅토리아 레게트가 이 지역 성공회 교회의 게바우어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아들 알피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싶으며, 자신들 모두를 이 자녀의 모친으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바우어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성 부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동성애 부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성공회 교회의 고위 성직자 콜린스(Gavin Collins) 신부는 바우어 목사의 결정을 번복하고 성공회 교회가 이 자녀의 세례를 거행할 것이며 두 명의 여성을 모친으로 등록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월드(World)지는 보도했다(A church divided, RELIGION | Gay agenda continues to roil worldwide Anglican Communion).

8천만 명이나 되는 교인을 가지고 있는 세계성공회 교단은 지금 이러한 동성애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안고 있다. 세계성공회의 수장인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는 영국, 캐나다, 미국 성공회의 자유주의적인 입장과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성공회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 시절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에 반대표를 던진바 있는 웰비 대주교는 최근 복음주의 성공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동성연애자를 향한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회개해야 하며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



## “캔터베리 주교, 영국 캐나다 미국 자유주의적 입장과 성장세 아프리카성공회 보수적 입장 사이 균형유지 노력“

아들이는 ‘혁명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비 대주교는 아직 동성연애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 영국 의회는 2013년 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동시에 교회의 동성연애 결혼식 거부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성애 활동가들은 교회의 예외 조항에 불만을 품고 성공회 교단을 상대로 모든 성공회 성직자가 동성애 결혼식을 거행하

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애자들은 교회를 포함한 영국의 모든 사회로부터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영국 성공회는 이렇게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과 동성애 결혼 인정

에 대한 문제로 분열을 겪고 있으며, 이 분열은 영국을 넘어 세계성공회 교회로 파급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보수적인 성공회 성직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0월 회의를 할 예정이다. 동성연애자의 성직 임명과 동성애 결혼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우간다의 엔타칼리(Stanley Ntagali) 대주교는 최근 이 문제들이 세계성공회 교회에 뿌리 깊은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냐의 와부카라(Eliud Wabukala) 대주교도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뒤엎는 행동이며, 교회의 심각한 영적 질병의 증상이라고 말했다.

세계성공회는 지난 2003년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진로빈슨 사제를 주교로 서품한 데 이어 캐나다성공회가 동성애자의 혼례를 승인한 이래 치열한 교리 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신도가 급증하면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성공회는 세계성공회의 본산인 영국성공회가 동성애자 포용 움직임을 지지한다면 교단을 영구히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영국성공회는 이에 미국과 캐나다 성공회에 대해 교단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동성애자를 포용하기로 결정할 때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성공회는 일방적으로 행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나 동성애자의 사제 서품과 동성 부부의 결혼 허용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를 먼저 포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소망 칼럼

##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심을 지키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속이 깊은 사람은 변덕이 없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영국교회 성직자로서 기독교 지도자이며 종교개혁자인 킹슬리(Kingsley, Charles)는 “제 갈 길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켜준다”고 하였다. 신자는 신앙의 길을 바로 알고 앞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심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능글능글 걸어가는 것이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로 “역경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역경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며 다만 주님께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방에 포로가 되어가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은 각오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단호한 신앙 태도를 보고 느브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에 그들을 옷 입은 채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신앙이 독실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나왔고 인간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력하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단3:12-26). 그때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을 구출하기 위해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불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불꽃이 치솟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의 결박은 불에 닿지만, 그들의 몸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성한 체로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고 고통 받는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사43:2)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신자들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만나는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며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만주 하얼빈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헌트 선교사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다. 경찰의 심문을 받으러 경찰서에 끌려가던 중 헌트 선교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온 다른 여러 신도들을 만났다. 헌트 선교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다시 형무소로 가기 위해 걸어 나오는데 약 20세 안팎의 한국청년이 경찰서로 잡혀온 신도들 앞에서 있었다. 간수가 그의 오른쪽 손목에 매달려 있는 한 쪽의 빈 수갑에 헌트 선교사의 손목을 끌어다 채웠다. 청년은 자기가 찬 수갑의 다른 한 쪽에 헌트 선교사의 손이 채워진 것을 보고 선교사와 함께 자기가 묶인 것을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였다. 헌트 선교사도 신앙을 지키려던 한국 청년신도와 함께 묶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호송차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간수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보고 차에 빨리 타도록 재촉할 때 청년은 선교사에게 말했다. “저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을 바라보니 모여 있던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끝까지!”라고 소리쳤다. 형무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버티고 신앙을 지키며 견디라는 격려였다. 헌트 선교사와 함께 묶인 청년의 아내도 다른 이들과 함께 소리쳤다. “끝까지!”, “끝까지!”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은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헌트 선교사를 바라보았다.

온 세상에 배신과 배교, 거짓 된 약속, 형식적 신앙이 판치고 비인간적 비도덕적 비열한 상황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면 교인도 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려면 비겁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와 겸손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깊은 신앙심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유원정 기자〉

## 종교개혁주일...자기개혁부터!

(1면에서 계속)

사도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래가 믿었던 신앙인이다. 더욱이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그 인격과 그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바꾸어 놓는 역사적 계기를 이루게 된 것이다.

개혁자는 나 자신부터 스스로 개혁(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 바꾸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개혁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변화해가는 것이 곧 자기개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성인(성숙한)이다. 그러니 누구의 권면 충고보다는, 개혁주일을 맞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변화되어가고 일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고치고 개혁” 하는 뉴욕교협 기대

(1면에서 계속)

회의는 회장 인사에 이어 개회기도 박희소 목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이사회 보고, 교협건물이전 추진위 보고, 청소년센터 보고, 신입회원 인준 및 환영, 임원선거, 신구임원교체, 신안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정은 총수입 357,218.90달러, 총지출 342,706.670달러, 잔액

14,512.23달러로 보고됐다. 건물이전추진위는 청소년센터 매각금 35만달러는 CD에 적립했으며 교협건물은 지난 7월 1백30만 달러에 매매계약하고 디파짓 6만5천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건물을 크로징이 끝나는 대로 새 건물구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건물 예상가는 1백50만~2백만 달러다.

이날 신입회원은 다음과 같다. 팔호안은 담임목사, 올네이션스침례교회(김례오나드), 햇빛선교회(하정민), 뉴욕즐거움교회(김정숙), 사랑의교회(강진식),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 리바이벌교회(장규준)는 신청은 했으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원선거는 1명의 회장 후보와 3명의 부회장 후보들에게 3분씩 발언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회장 선거는 박희소 목사의 건의에 따

라 부회장 김승희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 선거는 3분의 2를 획득해야 하는 첫 투표에서 박태규 목사 34, 이종명 목사 76, 이재덕 목사 82표를 획득했다. 2차 투표는 박태규 목사가 사퇴하는 가운데 치러져 이종명 목사 82, 이재덕 목사 100표를 획득했으며 3차에서는 이종명 목사 78, 이재덕 목사 104표를 얻어 이재덕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이사장 이주의 장로(뉴욕에임장로교회)가, 감사는 후보 등록한 김영철, 허윤준 목사가 선임됐다.

신안건으로 상정된 1. “신입회원 가입신청 자격조건” 2. “선교센터 교협산하단체로는” 중 1항은 통과되고 2항은 1년 더 숙고한 후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유원정 기자〉



# 베데스다 대학교 총 동문회 홈커밍데이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베데스다 대학교(Bethesda University)는 1976년도에 조용기 원로목사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위치한 베데스다 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BPPE의 인가는 물론,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 교육 인가 기관인 CHEA 산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 대학교입니다.

## 하반기 총 동문회 행사안내

<p><b>L.A 한인축제</b></p> <p>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장터 음식부스 운영 (장학기금마련)</p> <p>9월 26일~9월29일 (4일간)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p> <p>베데스다 대학교 홍보부스 (편.입학관련 문의 및 학교 안내) 9월26일~9월29일 (4일간)</p> <p>베데스다 대학교 음악과 L.A 한인축제 초청 공연 (음악대학 찬양사역과 학생 팀) 9월 27일 금요일 (1:00pm) 야외특설무대</p>	<p><b>O.C 한인축제</b></p> <p>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장터 음식부스 (장학기금마련)</p> <p>10월 10일~10월13일 (4일간) 비치와 멜번 코너의 시온마켓 몰 파킹랏</p>	<p><b>콩히 목사 부흥성회</b></p> <p>싱가폴 City Harvest Church 콩히 목사 초청 베데스다 대학교 부흥성회</p>  <p>일시: 2013년 10월 17일 (목) 6:50pm 장소: 베데스다 대학교 채플실(1F) 강사: 콩히목사(베데스다 대학교 공동이사장) 대상: 베데스다 대학교 재학생, 동문 및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누구나</p>	<p><b>체육대회</b></p> <p>베데스다 대학교 체육대회</p> <p>각종 경기시합, B.B.O., 푸짐한 경품추첨 일시: 10월19일 (토) 10:00am 장소: Ralph B Clark Regional Park (정소는 변동 될 수 있으니 전학문의바람)</p> <p><b>CCM 콘테스트 및 동문회 총회</b></p> <p>베데스다 CCM콘테스트 10월19일 (토) 5:00pm 베데스다 채플실(1F)</p> <p>베데스다 대학교 총 동문회 총회 콘테스트에 이어 바로진행 베데스다 채플실(1F)</p>	<p><b>동문음악회 (Alumni Concert)</b></p> <p>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Christmas Concert)</p> <p>일시: 12월 18일(수) 7:30pm 장소: L.A 나성순복음교회 주소: 1750 N. Edgemont St, LA, CA90027</p>
---	--	---	--	--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2): 제도화

영어에 organization과 organism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organization은 조직체를 의미하며, organism은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회사, 사회단체, 국가 등이 organization에 속하며, 모든 동식물은 organism에 속합니다. organization은 사람들이 만들고, organism은 생명체 이기에 생명의 창조자요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organization일까요? organism일까요? 당연히 교회는 organism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생명체인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엡 1:23, 골1:18).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요14:6, 15:1-6)이 머물고 있는 생명체 organism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2천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제도화하고 예배, 예식, 사역, 신학 등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왔습니다.

10여년 전 우리 교회 예배당이 Homestead Rd.에 있던 시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은 이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 체계가 너무 엉성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1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때보다 참 많이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엉성했던 그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계에 빈틈이 많으면 많은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많아지지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면 될수록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교회가 조직화될수록 인간의 역할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방향과 주요 사역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결정해 나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신앙보다 '종교화된 기독교'를 편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보다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조직화된 교회를 사람들은 더 편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organization이 되어버린 교회, 사람의 조직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롬8:2)이 다스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제도화된 종교, 생명 없는 종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세 교회지도자들도 그들의 교회가 제도화한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난 organization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organization이 되어버린 교회, 사람의 조직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롬8:2)이 다스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푸 / 른 / 초 / 장

**이병희 목사**

(Sheriff's Department Senior Chaplain)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외로운 곳이고 자유가 통제된 곳입니다. 출소 후에도 3-6개월의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그들과 누가 관계를 맺고 책임을 저주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5년 이상 교도소사역을 하면서 앙케트 조사를 해보면 가정예배 드린 사람, 새벽기도와 교회 일에 1년 이상 충성을 다한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수록 범죄나 마약에 빠질 확

상황에서 믿는 자는 강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도 이깁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한 신앙생활만 추구하고 말씀대로 강한 자와 관계 맺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3. 주님을 닮아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라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고 가라, 외라는 말속에는 적극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순종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잘못된 유혹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NO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재소자들이 자기 부모들을 '위선자'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교도소에 갈 확률과 마약에 접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재소자 80%가 사랑이 결핍된 결손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들은 갇힌 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갇힌 자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갇힌 자에게 사랑을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까? 성도인 나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와 복음을 교도소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갇힌 자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도소사역에 관한 문의 rglee@lasd.org)

## 잊혀진 전도 대상자들

(마 25:36-40, 사 42:7)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시나요? 부모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감옥에 갇힌자를 사랑하시나요? 오늘 주님은 갇힌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LA에 Unit Jail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 12,000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인종과 언어가 아주 다양한 곳이지요. 그곳이 바로 LA 안에 있는 선교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육에 갇혀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감옥이 존재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격리시키고 둘째로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서 재범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화시키는 일은 교회의 몫이요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실정은 교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범으로는 안되며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미국 마약 재활원 치유율이 평균 5-7%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된 것이라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갇힌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갇힌 자의 입장을 알도록 하라

오늘 말씀 중에서 '보라'라는 단

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갇힌 자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250만 명의 죄수가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이 이단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도소 목사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바로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면 믿기 어려우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흑인재소

자 반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나, 우리들입니다

1년에 미국 법정에 서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이중 90%가 다시 사회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석방자의 74% 이상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고 60% 이상이 상습 범죄자가 됩니다. 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오지 않도록 교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교도소들의 문제는 교도소의 수용해야 하는 인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것과 영적 상담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혼들을 교화시켜야 하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화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 사역현장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2. 와서(36), 가서(39) 그들과 관계를 갖으라

한국인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옥에 있거나 갔다 온 사람들

별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가운데는 감옥에 간 불효자라 하여 친 부모, 형제도 그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주어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갇힌 자와 자신을 동격으로 놓을 만큼 관계 맺을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감옥에 대하여 130회 이상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신 요셉, 삼손, 예레미야, 사도들과 세례요한, 베드로와 바울, 실라 등이 감옥경험을 바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한

롤이 적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내 아들 딸은 마약이나 갯과 관련이 없다고 과신하다가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대화하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부모님의 기도하는 손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가 재소자를 위해 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과 동거하며 계속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관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갇힌 자들에게도 관계를 맺고 유지해가야 합니다. 교도소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먼저 찾아가는 모범을 보이셨고 먼저 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나요?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주고 십자가의 피 흘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서(와서) 보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와서(가서) 보라'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은 말만하고 사랑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위선자라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갇힌 자를 적극 사랑하라는 명령은 꼭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2013년 10월 21일 - 12월 13일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On Campus Courses

###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자연재해 같은 자연적 악(natural evil)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학적으로 악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분류된다.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다. 자연적 악은 자연적인 재해, 질병, 불의의 사고 등과 같이 인간의 의지 또는 행동에 관계없이 일어난 악, 즉 고통의 문제이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악, 즉 죄의 문제를 말한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자연적 악 혹은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한다. 무신론철학자 Brian Marston은 비록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고 선한 하나님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재해가 나타난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타락 이전에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들은 이런 설명들은 재난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대해 돌리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심판이라고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홍수나 마지막 때의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모든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연적 악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를 말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가 운석이나, 지진, 화산이나, 홍수, 산사태, 폭풍, 번개, 산불로 인

0.1%, 유전적 질병 1.3%, 암 0.5%, 전염병 죽음 0.06%로 조사되었다. 이 모든 자연재해 전체를 다 합치면 3.2% 가 된다.

그렇다면 자연적 악,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열역학 법칙은 네 가지다. 그중에서 일부를 단순히 표현하면 열역학 제0법칙은 열적 평형상태이다. 열역학 제1법칙은 고립된 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한다.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 열역학 제2법칙은 만약 어떤 닫힌 계의 엔트로피가 열적평형상태에 있지 않다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법칙이다. 물에 잉크를 한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릇 전체에 퍼지듯이 만물은 해어지고 남아간다. 놀랍게도 이런 현대 물리학적 원리들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학적 혹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이 제한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을 사용하

과 같다.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Rich Deem은 천국의 모습을 과학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천국에 태양이나 달이 묘사하지 않아요. 천국은 죽음이거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 즉 열역학 법칙이 없다. 천국은 바다가 없다 즉 물의 순환사이클이 없다. 따라서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없다. 중력이 없거나 중력이 매우 약하다 즉 천국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성도들은 영적인 몸 혹은 물질적이지 않은, 물질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세계 즉 우리가 볼 때에 천국의 문제는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곳이다.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세계의 선택의 결여는 바로 하나님께서 두개의 세계를 창조 디자인하신 이유이다. 첫째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이 세상이고, 둘째로는 새창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상급을 주신 천국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무신론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기도를 적어서 하는데, 너무 온갖 이야기 다 적어 편지 읽듯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예배 때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적어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마치 편지 읽듯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LA에서 전화질문

**A:**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사역은 예배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공중 기도하는 분들은 대개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사실 공중기도는 보기에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기도순서를 맡으면 일주일 동안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늘 같은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기도시간도 제한되고 은혜롭게 기도해야 하니 이거야말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담당자들이 미리 기도를 준비하여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서 읽듯이 하는 기도도 결코 나쁜 것은 없습니다.

### 대표기도는 써서 하되 외울 정도로 예배중심으로

1. 목사가 설교를 위해 힘들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듯이 기도 맡으신 분들도 목사님처럼 기도할 내용을 미리 적고 준비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대개 적어보지 않고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시간이 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 대표기도 시간은 3분입니다. 특히 주일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기에 꼭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기 쉽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배시간이 주일은 1시간 10분 주중에는 한 시간입니다. 대표기도를 오래 하면 예배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목사는 불안해합니다.

2. 가능하면 종이에 써서 기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써서 하되 편지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익숙하게 몇 번, 혹은 수십 번을 연습하여 자연스러우면서 드르게 기도하십시오. 종이에 써서 연습했지만 가능하면 외워서 하시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써서 기도하면 좋은 점은 기도 시간을 3-4분에 맞출 수 있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한 기도는 뜨겁고 청중들에게서 아멘이 연발로 많이 나옵니다.

3. 대표기도는 온갖 것을 다 떠벌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표기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되 미리 주보에 기재된 교회내의 중요행사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4.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외부강사가 왔어도 먼저는 담임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위해 조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담임 목회자가 우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성령충만 말씀충만 사랑충만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쓰십시오.



## 자연적 악: 자연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님이 도덕적 악이 일어나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 허락된다고 해도, 자연적 악이 일어나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자연적 재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디자인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물론 결코 그렇지 않다.

현대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난들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과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다. 자연재해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막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연재해들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연재해들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악영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할 수 없는 비율로 증진시킨다. 그 예들은 태풍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홍수가 농경에 미치는 영향 등 끝이 없다.

그렇다면 자연적 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들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사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단은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 또한 자연재해들의 최대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란 견해도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의

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지구에 떨어진 운석으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가설일 뿐이다.

재해가 임한 지역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자연적 악의 극단적인 공격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세계적 규모의 큰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협하는 심각한 스케일은 아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미국인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자연적 악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훨씬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러한 재해로 인하여 죽는다. 리치 팀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자연적 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미국인들을 보면 자연적 악이라고 불리는 각 항목으로 영향 받는 사람의 비율을 보자. 미국인구 중에서 운석으로 0%, 지진 0.02%(Northridge 1994), 화산 0.2%(헬렌산, 1980), 산사태 0.02%, 홍수 0.03%, 허리케인 1%(카트리나 2005, 샌디 2012), 토네이도 0.06%, 번개 0.00004%, 화재

시어서 세계를 운행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보존관리사역이다.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많고 전능하신 신이라면 자연적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한 영원하고 온전한 장소가 아니다. 에덴동산은 아름다웠지만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물리학자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열역학 법칙으로 볼 때 완전한 생물학적 기계이다. 그렇게 되려면 제2열역학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우주이다. 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을 제거하면 우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거기에는 별도 없고,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도 없고, 열과 에너지를 의지하는 모든 기계를 만들 수 없다. 피조물들은 음식이나 신진대사 작용이나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죽지 않는다. 죽음은 제2법칙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꿈꾸는 가상적인 우주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의 완전한 우주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기술

께서 물질적으로 완전한 우주를 창조하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 결단코 완전하다 하지는 않으셨다. 생물의 세계도 너무도 놀랍다. 최근의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만물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생물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때문이다. 우리가 갈 천국이 완전하다.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연적 악마저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적 악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어리석은 주장된다. 도리어 그들이 주장하는바와 반대로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우주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http://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널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집어주시고 함께 물어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임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요절 2500**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구레네(GURENNE)



구레네 족은 부르키나파소 남중부 지역과 레드볼타(Red Volta) 강 서부의 가나 접경지역에 거주한다. 드문드문 언덕들과 모래 둔덕들로 이루어진 평원지대로 음지의 평균기온이 화씨 85도다. 건기 중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다. 구레네 종족의 기원은 밝혀져 있

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의 나브롱고 가까운 지역에서 왔다고 믿기도 한다. 구레네 또는 그루쉬로 불리어지는 그들의 언어는 가(Gar) 언어로서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다. 이 지역에서 하우사 종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우사어가 제2언어로, 그리고 교역통상어로 사용된다. 구레네 족들의 보건, 교육 시설들은 지역 평균치보다 더 양호하다. 큰 마을들 가까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 직업훈련학교와 간호전문학교도 있다.

삶의 모습 구레네 족은 대부분 수수, 기니아 아른, 콩,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다. 우기철에는 남녀 모두 필요한 곡물을 보충하기 위해 강가와 개울에서 고기잡이를 한다. 어린 여자들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쉬아 콩과 여타 숲속 부산물들을 줍는 일을 한다. 나이든 여자들은 코끼리 풀(elephant grass)을 잘라 돗자리와 바구니를 만든다. 다른 수공예품으로는 밧줄, 활과 화살 만들기, 가죽공예 그리고 도자기 굽는 일 등이 있다. 거의 모든 마을들에는 성당, 비누, 소금, 가죽, 생선, 과일 그리고 활과 화살 등의 품목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시장이 있다. 보다 큰 시장에는 타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빵, 설탕, 약품들과 구제류 등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한다. 오늘날 구레네 족들 사이에 중매

혼은 흔하지 않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상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자는 청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남자는 처녀의 가족에게 소네 마리, 염소 두 마리, 붉은 수탉 한 마리 그리고 기니아 암탉(guinea fowl) 한 마리를 신부대로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명 이상의 아내들을 거느리는데, 대개 35세가 되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다. 구레네 족의 음악집은 대체로 진흙 벽으로 둘러진 원통형이다. 가끔 그들은 벽을 구주풍 꼬투리와 소풍을 발라 방수처리를 하기도 하고, 벽들을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하거나 흙바닥을 두드려 매끄럽고 단단하게 마무리하기도 한다. 몇 개의 음악집들이 대가족이 거주하는 하나의 캠퍼운드를 구성하는데, 음악집들을 원형으로 나열해 담으로 둘러싸고 음악의 가운데에

는 가족 소유의 가족들을 두는 마당이 있다. 과거에는 구레네 족들은 문신, 종족의 표시 그리고 장신구들을 이용해 자랑했으나 오늘날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자들은 아래위 입술을 꿰뚫어 짐승뼈를 끼우거나 깃털을 꿰어 장식하기도 하며 더러는 낚시 발목고리를 하기도 한다. 신앙 구레네 족의 4분의1가량이 모슬렘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부족신앙을 따른다. 그들은 다수의 신들과 그 신들 위에 군림하는 한 최고신을 믿는다. 모든 마을과 집마다 신전들이 있어서 풍성한 수확과 건강 그리고 다른 필요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 수수와 기니아 옥수수 추수 후에는 신전에서 의식을 가

진다. 마녀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해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한 보호책들을 강구하기도 한다. 또한 예언자들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희생제사를 집행하고 환상을 보며 족장들과 교류하기도 한다. 구레네 전통종교에서는 조상숭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른이 죽으면 그가 조상들과 합류하며, 그들의 영혼들은 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의 영을 숭배하고 위기 때에 도움을 청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레네 언어 성경번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세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한국 기독교청소년 56%만 "구원확신"

교회에 다니는 한국 중·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16일 한국 목회자사모신문이 최근 열린 청소년성령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02명 중 617명(56%)만이 '구원에 확신이 확실히 있다'고 답했다. 또 '확실히 알지못한 것 같다'는 320명(29%),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150명(14%), '확신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6명(1%)으로 조사됐다.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서울 예정교회)목사는 "기독교청소년들 절반 가까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매년 교회의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결과"라며 "기독교청소년들에게 구원의 개념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080명 중 659명(61%)이 행복하다고 답했고, 가끔 행복하다고 답한 청소년은 323명(30%), 불행하다는 42명(4%)이었다.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080명 중 571명(53%)이 확실히 있다고 답했고, 확실하지 않거나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482명(44%)이었다. 설 목사는 "무한 경쟁과 물질만능에 빠진 이 시대를 살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 사생활공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눈송

미국의 한 TV방송국에서 현지 목회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설교자(Preachers of LA)'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LA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 6명의 화려한 삶과 목회자로서의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수십개의 조명이 밝게 빛나는 강대상 위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6명의 목회자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회는 직계는 2000명, 많게는 수만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다. 출연자 중 유명 가스펠 가수 디트릭 해딘 목사는 이혼 뒤 현재의 약혼자를 만나 혼전임신을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LA에서 목사이자 가수로 새 출발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교외의 대저택에 사는 목사,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는 목사도 등장한다. "오리프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성공"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첫 방송 때 100만명 이상이 시청해 화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레뮤얼 필머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목사들도 결국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들의 부유한 라이프스타일은 인간적인 면의 일부 뿐"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프로그램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제이 해즐립 목사는 크리스티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카를 모는 인물은 지난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도 했다"며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지 말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독교라디오의 부사장인 크레이그 파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독교 잡지 '월드'의 편집자인 워런 콜 스미스는 "복음주의 교회의 부끄러운 면을 TV가 들춰내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정부의 세무조사 같은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공무원은 동성결혼 진행 거부 안 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8일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장이 동성결혼 진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재는 이날 동성결혼을 집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7명의 시장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지 르피가로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개인적인 반대와 무관하게 맡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동성결혼을 집행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성결혼법은 프랑스에서 지난 5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성 커플의 결혼은 시장의 진행으로 공식 인정되지만, 일부 시장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면서 현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헌법소원을 낸 시장들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인권이 한 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앞서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법 통과 이후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며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시장이 고소당하는 등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일부 시장들이 결혼 진행을 거부하자 프랑스 의회는 지난 6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결혼진행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집트 교회 결혼식장서 괴한 총기 난사...

이집트 수도 카이로 외곽의 교회 결혼식장에서 20일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4명이 숨졌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일간 알아흐람이 21일 보도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밤 카이로 북부 알와라크 지역에 있는 콥트 교회 결혼식장에 복면의 무장 괴한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총탄을 발사하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결혼식 하객



12명이 다쳤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8살 된 여자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내무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2명 가운데 1명이 결혼식장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바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집트 과도정부의 하제 엘베블라위 총리는 범인들이 범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공격이 이집트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의 분열을 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8천500만 명의 약 10%가 콥트교를 믿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슬람 수니파다.

미 12살 중학생 교내서 총격

미국 네바다 주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총으로 교사를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바다 주 리노 시 근교의 스팅스 중학교에서 21일 오전 7시15분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과 교사가 숨지고 남학생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인 리노가제트저널(RGJ)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유족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는 총격 후 자살한 12살 1학년생과 2학년 수학 담당인 마이클 랜즈베리(45)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1주일간 가을 방학을 마치고 처음 등교하는 날 벌어졌으며 주변에는 20-3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직 범행 동기와 총기 입수 경위 등은 확실치 않지만 이 학생이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다. 2학년생인 미셸 에르난데스 양은 "그 학생이 너희들은 왜 나를 놀리냐, 왜 나를 비웃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가 몹시 화나 보였다고 전했다.

스팅스 중학교는 총격 직후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대피시켰다가 학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휴교하기로 했다. 다친 2명의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교사 랜즈베리는 이날 아침 학생 등교 지도 당면 교사로 일찍 출근했다가 총기를 든 학생을 발견하고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 4. 카이퍼의 회심(回心)

1862년 9월 20일 카이퍼는 그 유명한 스콜덴 교수 아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목사로 청빙하는 데가 없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대성했지만 아직 목사로 부족했다. 그러다가 26세 때 베이스드(Beesd)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사가 되고 결혼도 했다. 그는 아직은 온전한 개혁주의 목사라고 할 수 없었고 지성만 가득했었을 뿐이고 영적으로 깨어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서 카이퍼의 회심과 그의 영적 체험들을 살펴보자.

카이퍼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영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예민한 아이였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열 살 때 쓴 글이 있는데 카이퍼의 글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한다.

“저 카이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내가 저지를 악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1845년 10월 10일 오

후 10시30분이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악한 짓에서 벗어나서 착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때가 오후 11시15분이었습니다.

1878년 Middelburg에서 Abraham Kuyper”

10살짜리 어린 아이의 메모이지만 놀랍기도 하고 그 진실하고 진

회심한 사실이다.

첫 번째는 1863년 2·3월에, 그가 학장생활을 거의 마감할 때였고, 두 번째로 낯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베이스드교회 담임목사가 된 초기였다. 두 번째 회심을 통해서, 카이퍼는 1873년에 쓴 “확신컨대”(Confidentie)에서 그의 회심의 내용이 나타난다. 그 책에서 카이퍼는 그의 회심 뿐 아니라 회

심 후에 그가 밝힌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조목조목 잘 정리했다. 라이덴에서 일어났던 회심은 윤리적인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약혼녀가 선물한 샬롯 영(Charlott Yonge)의 “레드클리프의 상속인”(The Heir of Redclyffe)이라는 영어 소설을 읽고 난후에 일어났다. 카이퍼는 외국의 영향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

이에게 보낸 편지와 그가 후에 쓴 “확신컨대”는 젊은 날의 카이퍼의 심령이 레드클리프 상속인의 저자인 샬롯 영에 매료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카이퍼는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오만한 지성을 내려놓았다. 카이퍼는 이 첫 번째 회심을 통해서, 그는 중생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개

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영국 교회의 영성(靈性)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의 기독교강요(Institutes)의 첫 문장에서 깊은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 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카이퍼는 칼빈의 신지식(神知識)에 대한 명백한 정의에 불합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인 조 스카

종(국교에서의: 편집자)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카이퍼는 칼빈의 메시지 곧 하나님만이 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이해하게 되었다. 1863년 3월 22일에 카이퍼는 약혼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먼저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말할 수 없이 순진하고 성실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오래 동안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었으며 내가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의 충격을 받자 나의 순진한 믿음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나를 조금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한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제때에 마음을 바꾸었다. 지금 나는 나의 자만심이 너를 얼마나 괴롭게 해야 했으며 너의 경건한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알고 있을 뿐이다.”

카이퍼는 그의 약혼자에게 사랑의 고백보다 진지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 카이퍼는 그의 마음의 영적 방향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867년 4월 5일에는 그의 정적 멘토인 흐른 반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에게도 쓰기를 “그 순간부터 나는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교화되지 않았으며 나의 마음이 아직 나의 의지를 계몽하지 못했습

##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깊은 진리 체험...신지식(神知識) 정의 알게 돼

###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깨달아

그런 순진한 믿음과 함께 나의 참된 신앙심이 나의 영혼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비록 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 믿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찾아냈다. 그것이 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돌아왔다. 나는 너의 몸과 마음에 진실한 아이처럼 비추고 있는 나의 형

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회심도 있지만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카이퍼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비밀을 그의 약혼녀에게 솔직히 표현했다.

(다음호에 계속)

## 칼럼 음악목회 (16)

### 교회음악의 영역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음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범주는 대체로 예배(구약에서 제사)에 귀속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민족은 예배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역사 저자인 어거스트 빌헬름 암부르스는 “히브리인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인 최초의 음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의 음악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

로우시요...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15:1-2). 구약시대 제사음악의 보편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화려하고 장엄한 3000명 등과 같은 큰 성가대와 240명의 나팔수와 같은 대관현악단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까지 제사에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함이었던라”(대하5:13-14). 이렇듯 제사에 사용된 음악은 규모면에서나 예배성격적으로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나타난 음악이 모두 제사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그들의 삶의 음악 또한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그 예로는 라

맥의 노래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제사와는 달리 법계를 운반하는 노래나 드보라의 노래, 또는 우물파기 노래 등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들도 종교적 성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으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삶의 음악 역시 종교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음악의 형태가 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귀속되었던 음악으로서 큰 규모의 성가대와 관현악 같은 형식이 없어지고 구약시대의 삶의 노래와 같은 형태로 발전했는데, 악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이 백성들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음악은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구약의 음악은 외적으로 웅장하고 의식적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음악은 규모는 작지만 내적으로 신령한 노래로 복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의 찬송은 더욱 영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은밀한 곳에서 부르는 찬송이었기에 악기 없는 무반주 음악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중세시대를 지나오면서 무반주 음악으로 계속 진행해오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무반주 다선 음악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세교회와 교황이 왕권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고 음악 또한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분기점으로 문예부흥과 더불어 인본주의가 싹이 트면서 교회 안에 갇혀 있던 음악이 조금씩 교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예배에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음악의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소형 미사곡에서 연주용 대형 미사곡으로, 예배용 칸타타에서 오

페라와 같은 극적인 오라토리오로, 무반주 음악에서 반주 있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배음악이든 연주용 음악이든 생활음악이든 모교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일반은혜와 특별은혜(구속의 은혜)가 있듯이 음악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인가? 사람을 위한 음악인가? 두 갈림길에서 교회음악의 범주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음악이 교회 안이라는 테두리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형태로 연주되든지 그 내용이 복음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61. 창조론의 기초(12) - 헬렌스 산의 노아홍수?

지질학적인 지형을 형성하는 데는 소량의 물과 수백만 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과 짧은 시간만 필요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인류는 수십 년 아니 거의 100여 년 동안 오답을 갖고 살아 왔다. 과거의 모든 변화는 격변 없이 현재 관찰되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었다는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이란 패러다임에 갇혀 수백만 년,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수천 년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격변적 사건을 말하고 있다.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이어지는 진화론의 6억년이 아니라 단 한 차례, 단 1년간의 지구적 격변적 노아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도 노아홍수의 격변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대륙을 덮고 있는 지층은 성경에 기록된 전 지구적인 노아홍수가 사실이었음을 믿기에 충분한 증거다. 더욱이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지금도 격변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노아홍수 때 만들었던 증거들과 같은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미국 워싱턴 주의 세인트헬렌스(St. Helens) 산이다.

세인트헬렌스 산의 화산폭발은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화산들 중에서 가장 관찰이 잘 된 경우다. 폭발의 조짐이 있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처럼 자세한 지질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 그 주위의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다). 1980년에 폭발한 이 화산을 통하여 과학자들은 화산활동, 침식, 퇴적, 암석화, 화석화, 석탄 형

성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다. 세인트헬렌스 산 화산폭발은 엄청난 물이 동원되었던 노아홍수와 같은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도 어떻게 노아홍수와 유사한 증거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산을 덮고 있었던 두꺼운 빙하 때문이었다. 화산이 터지자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 내렸는데 그 속도가 쓰나미(보통 800km/h)와 같았다. 이 물이 화산재와 화

드캐년”이라고 부른다. 세인트헬렌스 산의 또 다른 곳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무가 규화(petrification)되고 석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상과학자들이 수백만 년의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의 눈앞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자들이 세인트헬렌스 화산폭발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들

1. 헬렌스 산에서 200m나 되는 퇴적층이 빠르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각 퇴적층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가 없다. 한 층이 형성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위의 층이 형성되었다면 아래층에는 여러 종류의 짐석 흔적(물이 흐른 흔적, 나무나 풀이 자란 흔적 등)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륙을 덮고 있는 지층들도 헬렌스 산에서 만들어진 지층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쌓이고 쌓여 대규모 지층이 되었다는 설명은 증인의 말이 아니라 상상이었다.

2. 헬렌스 산의 캐년은 불과 2주 후 한나절 만에 만들어졌다. 갑

소 연대측정법은 과거에 생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임을 확인해주었다(사실 이 연대측정법으로 나이를 알고 있는 암석의 나이를 맞추어 본 적이 없고 실제와 상관관계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가 가장 정확하다는 방사성 동위원소법에 근거한 오랜 지구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헬렌스 산에서 격변적으로 흘러 내려온 약 400만 그루의 나무들이 통나무 매트처럼 주위 호수에 떠 있다. 이 호수 바닥에는 두꺼운 피트(석탄의 원료가 되는 나무껍질이 주성분) 층이 쌓여 있는데 또 다시 분출하여 덮인다면 그것은 석탄이 될 것이다. 석탄이 묻혀 있는 탄전은 웅덩이가 아니라 지층 사이에 끼여 있는 석탄층이며 석탄의 주성분은 나무껍질이다. 진화론적인 설명으로는 나무의 목질부와 나무껍질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아홍수 모델은 목질부는 물에 떠 있고 껍질만 가라앉는다고 손쉽게 설명하는데 헬렌스 산에서 정확히 그 설명대로 현실화 되었다.

5. 헬렌스 산 아래 호수에서 물속에 수직으로 떠 있는 통나무들이 발견되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규화목들이 있다. 세속학자들은 살아 있던 나무가 그 자리에서 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화목은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원줄기만 있다. 노아홍수의 격변에 가지와 뿌리는 부러져 나가고 원줄기만 물에 수직으로 떠 있다가 묻혀 옐로우스톤의 규화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홍수의 격변적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격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홍수를 사실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1980년 5월 18일에 세인트헬렌스 산 화산폭발을 통하여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아홍수의 증거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세인트헬렌산 화산폭발은 “동일과정설” 한순간에 뒤엎어 200m두께 퇴적층 몇년새 퇴적암화, 한나절에 캐년 형성



**St. Helens 산의 노아홍수**  
지층, 캐년, 강, 규화목과 석탄 형성 등 노아홍수의 증거와 과정들이 과학자들의 눈 앞에서 펼쳐졌다

자기 흘러내린 강력한 진흙탕 물의 흐름이 퇴적된 지층을 깊이 파서 “작은 그랜드 캐년”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지난 2000년 ‘그랜드 캐년 형성에 관한’ 학회에서도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 상류에 있었던 호수의 댐이 터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천만 년의 장구한 침식기간은 없었던 것이다.

3. 헬렌스 산 화산에서 생긴 불과 수십 년밖에 안된 석영 안산암을 동위원소 연대측정을 하니 수백만 년이 나왔다. 분출된 지 6년이 지난 용암의 성분들을 각각 분리하여 측정했을 때 각각 크게 다른 연대가 나왔고 수백만 년까지 나왔다. 이 방사성 동위원

산 분출물과 함께 내려오면서 숲과 산 아래를 초토화 시켰다. 순식간에 바위가 침식되었고, 세상 지질학자들의 말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쌓일 수 있다고 주장하던 것과 똑 같은 모양의 퇴적층이 곧바로 생겨났다.

산 아래에는 200m 두께의 퇴적층이 쌓였다. 이 퇴적층은 불과 몇 년 만에 단단한 암석(퇴적암)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에 이 지층들을 도려내는 사건이 발생해 순식간에 캐년이 형성되었다. 이 캐년의 모습이 그랜드캐년과 너무 닮아 창조과학자들은 “작은 그랜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무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게 손안에 풍성히 쥐어져 있을 때는 귀히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는 상상을 불허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에덴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의 모습에서 극도로 자신에게 충실하여 동생 조차 죽이고 에덴의 더 동쪽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겪고 난 후에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찌지 섭섭한 원망과 올라오는 죄의식으로 변명 등으로 꼬여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첫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 착한 아들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사건 속에서 겨우 자신들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아벨대신에 아들 셋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심경을 만나며 아버지의 심장과 만나며 믿음의 교육 부재로 실패한 가인을 떠올리며 셋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시켰다고 보입니다.

하나 아무리 잘 배웠다하더라도 철이 드는 것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인 것같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즈음에 셋을 포함한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창4:26절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라진 아담의 모습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공연히 고백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행해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이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하나 둘 떠나가 버릴 때 비로소 “아벨사 그대 내게 복이구나...” 땅을 치는 우리네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모든 인간사에 되풀이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을 넘어 그 분의 속내에 하나 하나 감동되어 만나며 깊이 그 분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겠지요. Never too late!

다 잃어 버린듯해도 인생은 언제나 오늘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뒤 늦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진솔히 부르고 예배하는 나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주시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에 익숙한 못난 모습을 내어던지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게 허다한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고 있는 아버지의 섬세한 배려에 그저 따뜻한 품에 나를 던지고 더 많이 감사드리지 못할을 회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고맙습니다. 넘치게 받은 이 사랑, 만나는 이마다의 가슴에 와 닿도록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격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모나리자

##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슬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목회서신

Re엔지니어링(?)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리엔지니어링의 창시자인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는 그의 책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Reengineering the Corporation)에서 변화의 필연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다"라고 말하며 변화를 멈추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대안으로 말하는 리엔

지니어링이란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의식전환과 기업 구조 개편이며 "업무의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즉 경영 효율과 혁명을 위해 기업이 업무 프로세스(process)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해머의 '리엔지니어링'은 교회 개혁의 필요성(De Ne-

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을 주장한 개혁주의자들의 '개혁'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개혁이고, 개혁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Ad Fontes)"고 주장하며 교회 개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 계속 성장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에 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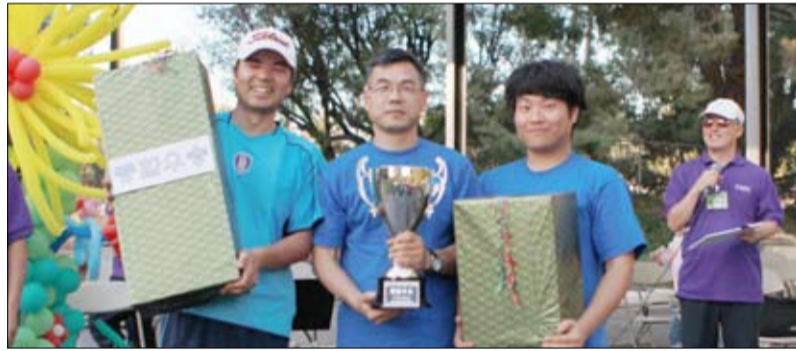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고 말씀하셨습니다(눅 5:38).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새 술이 발효되면서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립니다. 낡은 전통, 구태의연한 관습, 외식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타성에 젖고 굳어버린 조직, 고정관념 등등... 이 모든 것이 곧 낡고 헌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때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수도 성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룩한 헌 부대에 담으려 할 때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뜻하고, 새 술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오랫동안 존중했고 또한 익숙했던 전통주의와 외식주의의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음으로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마음을 지키며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땀과 불이익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 전파에 올인(All in)했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리엔지니어링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속에 타성에 젖어 굳어버린 생각과 조직, 한때 필요했고 유일했었던 이데올로기들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발상, 방법, 그리고 태도들을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을 위

한 리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성경적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을 되찾아서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남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리모델링(remodeling)이 아니라 리엔지니어링(개혁)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Semper Reformanda). 우리 각자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개혁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죽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해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민족 차세대 만남...연합선교 다짐 제 9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 성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 참석 다민족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찬양하고 있다.



2013 신학대학교 연합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미주장신대학교 학생들이 트로피와 상품을 들고 있다

미주장신대 종합우승 2연패 2013년 남가주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성료

2013년 남가주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돼 미주장신대학교가 작년에 이어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이상명 미주장신대학교 총장은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해서 기쁘다. 체육대회를 통해 남가주 한인신학대학교들과 친교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피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종목으로 열렸으며 미주장신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주감신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 등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오정숙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흥주 목사(월드미션

대학교)가 기도, 오성오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가 특송을 했으며 최규남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부총장)가 '잃어버린 자를 찾자'(눅 1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광훈 목사(국제개혁대학교)가 축도했다. 또한 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가 축사를, 오정숙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생회장이 개최선언을, 김요셉 학우(그레이스미션대)와 소피아백 학우(월드미션 대학교)가 선수대표 선서를 한 후 경기를 시작했다. 이날 경기는 축구와 배구, 그리고 줄다리기에 미주장신대학교가, 족구와 피구에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그리고 계주에 미주감신대학교와 국제개혁대학교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제9회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체육대회, 봉히 목사초청 부흥성회, 총회 임원단 유임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 총동문회(회장 최명상 목사)가 주최한 제9회 총동문회 홈커밍데이가 '베데스다인 뿌리 찾기'란 주제로 17일과 19일에 열렸다. 17일 오후 7시에 열린 봉히 목사(싱가폴 시티하베스트교회 담임, 베데스다대학교 공동이사장) 초청 축복성회는 박정기 동문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백석영 목사(감사)가 기도,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 찬양사역과 학생들의 특송, 봉히 목사가 말씀선교 및 축복기도를 했다. 또한 19일 오전 10시에는 플러턴시에 위치한 알프스 클락 리저널 파

크에서 동문 및 재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체육대회를 가졌으며, 오후 7시에는 총동문회 총회 예배를 드렸다. 최창수 총무 사회로 드린 예배는 제이선전 선교사가 기도, 증경희 장 김훈 목사가 말씀선교를 했으며 이창길 베데스다대학교 전학장이 축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회장단이 유임됐다. 다음은 2013-14년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임원명단. △총동문회장 최명상 목사 △부회장 박정기 목사, 김지연 △총무 최창수 목사 △회계 김지연 △감사 백석영 목사. (박준호 기자)

APU목회자 리더십세미나 성황 강준민, 노진준, 노창수, 김한요 목사 강사로



APU목회자 리더십세미나에서 노진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아주사피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 한인석사과정프로그램 디렉터 변명해 박사)가 주최한 APU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리더십과 영적권위'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는 리더십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크리스천리더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기능적 실력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주최 홈커밍데이 행사가 '베데스다인 뿌리찾기'란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19일에 열린 체육대회 행사 후 기념촬영모습

CTS뉴저지기독교TV 개국기념예배 19일, 후원이사 21명 명단발표

CTS 뉴저지 기독교TV방송국(지사장 한은경) 개국기념예배 및 후원의 밤이 지난 19일 저녁 뉴저지 연합감리교회(담임 안성훈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박근재 목사(뉴저지 교협 총무)의 인도로 기도 김중국 목사, 성경봉독 이동구 장로, 찬양 뉴저지장로성가단, 말씀 박상천 목사(뉴저지교협 직전회장,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봉헌기도 김연수 목사, 권번 안성훈 목사, 축도 김정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장현경 아나운서 사회로 후원이사회 소개 이학균 장로, 후

원이사 소개 신정하 장로 등 21명, CTS뉴저지어린이합창단(총감독 장현경) 소개 및 찬양, 축사 이병준 목사회 회장, 배희남 BIG투자그룹 회장, 인사말 김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CTS장로성가단 소개, 축복송 실버중앙단 CTS중앙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히 한국에서 CTS장로성가단(단장 정원택) 100명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 CTS 뉴저지기독교TV는 케이블 비전 1156과 디렉TV 2092 채널을 사용해 일일 24시간 주 7일을 방송한다. (유원정 기자)



남침례교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연합사역 통해 지역사회 섬기자" SBC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만남의 장

지난 21일 남침례교단(SBC) 뉴욕과 뉴저지 한인지방회 임원단이 만남의 장을 가졌다. 플러싱 금강산에서 모인 임원단은 향후 1년간 뉴욕과 뉴저지 침례 교회들이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자고 다

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대한 안부를 물음으로 시작된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했다. (기사제공: 남침례교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노 목사는 "리더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이해는 신권대행자라 하며 리더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목사는 신분상 제사장, 왕, 지지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신분상 교인들은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며,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목사는는 직분적인 역할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모던시대에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따르는 자들을 움직이도록 인도하기 위해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권위가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설교로 3년 목회하고 신앙인격으로 30년 목회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리더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리더십의 핵심가치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는 남가주 사랑의교회가 노창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듯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특정 목회자의 교회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목사는 "목회는 주님의 목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잘 돌리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부분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교회성장의 비결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단지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성장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목회현장에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 교회가 진통을 겪는 것 같다. 내가 목회를 마치고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남는다면 그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이다. 목회는 내 이름을 남기는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PU 목회자 세미나는 100여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모여 4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의내용을 시종일관 경청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민 13:20-33)',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리더십과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인도했다. 또한 스캇다니엘 박사(APU 신학대학교 학장)이 인사말을, 변명해 박사(APU 한인 석사과정프로그램 디렉터)가 스템소개를 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제 4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11월 3일(주) 오후 5시 동 교회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송실합창단, P&J, 갓스 이미지, D.I.M, G.C.C밴드, 뉴욕평화교회 찬양밴드, 사라 정.

▲문의: (732)213-5856 이창호 집사

“사모들을 위한 우정과 사랑캠프”

시티헌터(사장 박성양)가 주최하고 패밀리리더(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하는 “사모들을 위한 우정과 사랑캠프”가 11월 15일(금)과 16일(토) 돌리스 팰리세이드 호텔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목회자 사모(선착순 40명)로 강사는 방지각 목사, 정정숙 원장, 이정애 사모.

▲문의: (862)686-8515

뉴욕나눔의집 자선음악회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창립 2주년 한인 노숙인 쉼터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11월 3일(주) 오후 6시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뉴욕클래시컬유스 오케스트라, 뉴욕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출연한다. 티켓은 10달러, 청소년은 무료다.

▲문의: (718)683-8884

“주손길” 출판감사예배 및 음악회

고요한 목사의 저서 “주손길” 출판감사예배 및 음악회가 11월 10일(주) 오후 5시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하며 지인식 목사부부, 뉴욕장로성가단, 김옥례 목사, 뉴욕진리교회 청년부, 서병선 회장,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밀알중앙단, 미동부승실OB남성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문의: (718)404-5548, (347)577-2332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Y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Y이 플랜플레이(대표 이종길) 주관으로 11월 22일(금)과 23일(토)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기독교 사역/사업체 박람회, 8시부터 집회가 시작된다. 강사는 임홍섭 목사(테버중앙장로교회, KOSTA 강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 데이케어가 제공된다. 공용주차장에서 떠나는 셔틀이 운행된다. 한편 집회후원을 위한 전도용 만화책자 ‘사영리’(한영) 주문을 받고 있다. 가격은 2달러.

▲문의: (516)978 7526 이메일: info.planplay@gmail.com

큰믿음교회 변승우 “뉴욕중보치유집회”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회원교회에 경계 이메일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산하 이단·사이버대책협의회(회장 최장섭 목사)가 회원교회들에게 “뉴욕중보치유집회”를 경계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이메일에서 “근간 일간지 전면면에 광고되고 있는 ‘뉴욕 중보치유 집회’(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리틀넥 소재 뉴욕큰믿음교회에서 열림)는 한국의 주요교단들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당하며 참여 및 교류 금지 대상으로 경계되고 있는 서울 큰믿음교회(변승우)의 뉴욕 지교회 설립 및 미주지역 교세 확장을

위한 집회임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섬기시는 교회에 광고해주셔서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진리수호에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큰믿음교회(변승우)는 한국 주요교단 5개 총회(합동, 고신, 합신, 통합, 합동정통)에서 2009년 동시이단 관련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속했던 교단에서 제명·출교를 당한바 있다. 통합 총회는 “직통계시에 근거한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정통구원관과 다른 구원론,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

태” 등을 들어 이단성을 발표한바 있다.

뉴욕의 큰믿음교회는 2010년 11월 웨체스트 지역에 지교회를 세웠으며, 2012년 4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리틀넥으로 예배장소를 옮겼다. 또 뉴욕이외에 워싱턴DC, 애틀랜타 등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 지교회가 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취하라”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장에 김지희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총동문회장에 김지희 목사, 부회장에 임영근 목사와 이경남 전도사가 선출됐다.

김지희 신임회장은 “회칙에 명시한 대로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회원 상호친목과 유대강화, 신학교 후원 등을 제시하고 동문들의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동부개혁장신 동문회는 지난 21일 제 2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선출하고 감사에 이종원 목사와 허윤준 목사를 선임했다.

1부 예배는 회장 손한권 목사 인도로 기도 이영상 목사, 성경봉독 최미하 전도사, 설교 장영춘 학장, 광고 김창렬 목사, 축도 김해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딤후6: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14일부터 불가리아에서 열렸던 싱글선교사대회 참석 시 만난 동문선교사들 소식을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역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회무는 손한권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재정은 총수입 7,357달러, 총지출 7,209.89달러 잔액 147달러로 보고됐다.

이날 참석한 역대 동문회장들은 △정확한 주소록 작성 △선후배 동문간 교제 △웹사이트 활성화 △동문회지(목원) 발행 등을 건의했다.

장영춘 학장은 뉴욕교계에 바른 신학풍토를 조성하는데 동문들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고 여성동문들의 활발한 참여와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임원들, 왼쪽부터 캐더린권, 임희수, 임병남, 최예식, 황동익, 김기호, 송일권 목사

뉴욕목사회 임원들과 기자간담회  
“1년간 행사홍보 협조 감사”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지난 21일 저녁 산수갑산II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회장 최예식 목사는 뉴욕목사회 41회기를 지내면서 행사홍보 협조에 대한 감사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 기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목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회”라는 슬로건을 갖고 출발한 41회기 목사회가 임기 한 달을 앞두고 있다”며 “이스라엘/이집트 성지순례를 계획했으나 현지사태로 무산됨에 따라 회원자녀 장학금 전달을 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28일(월)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에서 갖게 되며 수여자는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날 사랑의 쌀 나누기를 펼쳐 단체 5곳에 각 5포(20파운드짜리)씩 총 25포 정도가 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원들과 기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성목사와의 협력 등 교계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또 42회기 정부회장 임후보 등록도 받고 있다. 원서마감은 11월 8일(금) 오후 5시.

(유원정 기자)



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왼쪽)와 감사 합동근 목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가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추계부흥성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추계부흥성회를 열었다. 강사는 합동근 목사(순복음한성교회 담임), 집회는 예루살렘중앙단과 여호수아중앙단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합 목사는 둘째날 저녁 여호수아 10장 12-14을 본문으로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려면 어렵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단단히 갖고 굳은 결심과 의

지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알고 행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베드로 역시 밤새 고기를 못잡았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것은 주의 뜻대로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합동근 목사는 한세대(M. Div)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패시픽 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순복음신학교 교무처장, 기하성 부총회장 등을 맡고 있다.

(유원정 기자)

제 28기 목회와 선교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단체인 크리스천존(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의 제 28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제 28기 컴퓨터 강좌는 ‘스마트폰 강좌 플러스 어젠’이다.

강의는 스마트폰에서의 카톡 사용법,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보는 법,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보내는 법, 스마트폰으로 그룹카톡하는 법, 캘린더 활용법, 인터넷이나 지도 등 유용한 앱 다운로드 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

마트폰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한 PC에서 카톡하는 법, 유튜브로 검색하는 법, 유튜브로 영상 올리는 법과 페이스북 입문 등은 28기에 새롭게 추가한 과정이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장, 프라미스교회 8층).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40달러지만 4회 개근자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등록시 미리 예고된 결석은 무방하다. 선착순 12명에 한해 접수한다.

▲문의: (718)463-1700, 이메일 newyorktop@gmail.com로 하면 된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 2014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마감 임박

종류	구분	내용	가격
도	출출(표지)	3.5cm x 4.5cm	\$600.00
		17cm x 24.5cm	\$3,000.00
	전면컬러	표지내면(2면, 3면)	\$3,500.00
		Back 면 Back 면 내면 Inside	\$2,500.00
	*전면컬러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컬러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15.5cm x 5.8cm	\$350.00
	전면 1/4	7.7cm x 11.7cm	\$250.00
		15.5 x 2.8cm	\$250.00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전승인)	3.7cm x 7.5cm	\$200.00

구분	내용	가격
1	교회(기관)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주소 한글:	
	영문:	
3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이름:	
5	6)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7) E-mail Add.	
8	8) Web Add.	
	9) 소속교단(명확하게)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성시화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

##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 '2013서울선언문' 채택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전용태 장로)가 주최하고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조직위원회,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개최됐다.



서울성시화대회에서 2013명으로 구성된 세계메시아여성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 국가와 도시별 성시화운동의 비전과 실천의 장(場)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러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대회 개최선언, 이영훈 목사(2013서울국제성시화대회 대표대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개막예배 설교, 박성규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주님세운교회)의 2부 설교, 송정명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도 순서가 있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참된 성시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막예배에 이어 교회 십자가 탐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PPP(부산-판문점-평양) 십자가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빙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행사를 마친 뒤 준비한 대형십자가를 지고 주변을 행진했다.

김인중 안산동산교회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열린 세계성시화대회 기조제시지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북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번 성시화대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해오름교회, 새에덴교회, 안산동산교회, 인천내리교회, 대전, 광주, 인천, 인천, 경남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동경 성시화운동본부,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에서 모인 2013명으로 특별히 구성된 세계메시아여성합창단(총지휘 노형진 선교사)이 행렬의 '메시아'를 부르며 시작됐다.

음전도운동과 기도운동, 사랑의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불씨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바로 성시화운동"이라고 설교했다.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와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탐방한 뒤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통일기원 기도회를 열었다. 임진각 기도회에선 노란리본 달기, 주먹밥 먹기 등 통일기원 행사를 하고 끝어진 다리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북한 성시화 전략도 발표했다.

18일 오전에는 세계성시화지도자전략회의 및 총회, 성시화 특강을 갖고 '직능별·지도자·국가변화를 위한 성시화운동 전략'을 밝혔으며 한반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2013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며 2박3일의 일정을 마쳤다.

성시화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제네바 성시화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과 대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국내외 70여개 도시에서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돼 있다. <공동대표취재단 정요한 기자>

# 조선반도 여성을 일깨운 기감여성선교회 116주년

## 10월 22일부터 여성주간 축제

1897년 12월 31일, 서울 정동감리교회에서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가 여성교육이었지만, 토론회 발제자 중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인류의 타락은 하와에서 시작된 만큼 여성교육은 타락만 조장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을 지켜보던 한 여성은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셨겠느냐"고 외쳤다.

남존여비 사상에 묶여있던 조선의 여성들은 차별 없는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 인권의식에도 눈을 떴다. 기독교자들은 복음전파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향상, 애국계몽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여성 크리스천들은 독립운동과 농촌 운동에 앞장섰다.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이다.

정동교회의 토론회가 있었던 그해 10월 감리교 여성운동 단체 조이스회가 탄생하는 등 감리교 여성 교인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 1900년 이화학당에선 여성기독교단체인

보호여회가 조직돼 구제 및 전도 활동에 나섰다. 3년 뒤 평양 남산현교회에서도 보호여회가 만들어졌다. 남부 감리교 여성교회 합동 총회는 1930년 처음 열렸다.

한국 초기 개신교 및 근대사에서 두드러진 여성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이규화 장로)는 22-25일 창립 116주년 기념예배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기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의 모체가 바로 조이스회다.

이번 여성교회 주간은 '역사다. 연합회 임원총무는 21일 "여성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방 봉사 등으로만 국한하는 선입견을 깨고,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주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매년 10월 중 여성주간을 정해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기감 여성교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예배에선 우드노트 국악선교단의 특별공연이 열렸다. 회관 7층에서 여성, 예배, 교회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크리스천 여성 작가들의 사진, 칠보공예품, 도자기 등의 작품전시회도 마련됐다.

# "신천지 때문에 과천 떠나고 싶다"

## N쇼핑몰에서 불법 종교집회...주변 상인들 몸살

이단 신천지 집단이 건축법상 종교시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집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의 한 쇼핑몰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들어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N쇼핑몰. 신천지는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오고 있다. 하지만 N쇼핑몰 9층과 10층은 건축법상 각각 운동시설과 문화, 집회 시설 용도로 승인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측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최근 과천시 신

# 신천지 때문에 과천 떠나고 싶다"

## N쇼핑몰에서 불법 종교집회...주변 상인들 몸살

이단 신천지 집단이 건축법상 종교시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집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의 한 쇼핑몰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들어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N쇼핑몰. 신천지는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종교집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건물용도상 운동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승인돼 있어서 종교집회를 가

질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N쇼핑몰. 신천지는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오고 있다. 하지만 N쇼핑몰 9층과 10층은 건축법상 각각 운동시설과 문화, 집회 시설 용도로 승인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측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최근 과천시 신

천지의 종교집회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밝혀졌다. N쇼핑몰 상인 A씨는 "신천지의 종교집회가 있는 날이면 쇼핑몰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실내 에스칼레이터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종교집회가 있는 날이면 인도까지 차들로 들어차 정상적인 영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신천지측도 이같은 민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8월 말 과천시 건축과에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방화구획설치나 배수설비설치 기준 등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무엇보다 민원이 계속 발생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천시는 더 나아가 신천지의 불법적인 종교집회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신천지측에서 계속해서 종교시설 용도가 아닌 시설에서 종교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B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시정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집회 일면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강력한 시정 조

# 한교연, 예정합신 가입 결의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우근 목사)은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예정합신·총회장 이주형 목사) 교단의 가

입을 결의했다. 예정합신교단은 내달 11일 열리는 한교연 실행위 및 임시총회를 거치면 최종 가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예정합신은 지난달 말 현재 896개 교회 15만2000여명의 성도를 지닌 중형 교단이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사: (1)교회사 (2)조직원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사: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사 내용  
(1) 구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2) 신약 주해 - 레위기 21:1-9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고린도전서 15:1-10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은 중심으로 설교설기고사를 지름  
(5) 제출고사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본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본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사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사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 할것 5월 16일-20일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영어역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6(Fri) ~ 19(Mon), 2014  
2) Place: Toronto, Canada
-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fess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Luke 16:19-26  
(2) N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3)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4)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와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연방 정부가 섰다운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미국 경제가 안정되길 소원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정서와는 다르게 봄을 맞이하는 꽃샘추위로 인해 두꺼운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 중남미 제 1회 컨퍼런스 모임

## 1. 국제 기아대책 중남미 제 1회 컨퍼런스 대회

중남미기아대책 제 1회 중남미 컨퍼런스가 아르헨티나의 BSA에서 9월9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국제 기아대책 본부가 주최하여 중남미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 60여명이 모여서 '회복과 비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중남미 선교의 네트워크 VOC(Vision Of Community)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랜디 박사의 강의와 함께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CDP 사역을 위한 분반 공부하는 모습

특히 감사한 것은 이번 컨퍼런스를 마친 후에 국제기아대책의 고수미 본부장, 오정은 지역개발 팀장들과 간사들과 함께 저희들의 라스 로미파 지역의 위치족 인디오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현장을 돌아보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어린이 CDP사역 (Child Development Program)

지난 8월 10일 어린이 사역을 위한 오픈 행사를 가진 후에 매주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주일학교 예배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영적, 육체적, 교육적, 사회, 정서적)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선정하여서 교회까지 버스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매 주마다 스쿨버스 임대비가 50불이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목회자, 리더 사

위치족 인디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들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포교회 청년들이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단기선교를 와서 위치족 교회들의 어린이와 사역과 교사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포 청소년들의 단기 선교사역은 위치족 인디오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 포소 지역에는 68가정의 위치족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영광과 평화교회의 로베 목사를 중심으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위치족 인디오들이 야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위치족 인디오들에게 제공한 땅을 개간하여서 농작산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족 인디오들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30여가정의 성도들이 협동농장개발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용수가 확보가 되면 위치족 인디오들의 삶의 질은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 4. 뉴아가페교회 건축 사역

2009년도에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 후원하여 건축하던 교회가 건축하던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그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선교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일산의 새중앙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의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인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며.....  
아르헨티나에서 장영호, 백미영 선교사 드림

## 3. 위치족 인디오 사역

역원에서 훈련 받은 현지인 자원봉사자들 30여명이 스태프로 함께 참석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태프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자재들을 준비해오는 것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의 사역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치족 인디오 사역을 위한 기아 봉사단 사역



# 방지일 칼럼 (13) "본대로 들은 대로" 능동보다 피동

신앙영역에서는 능동보다 피동이여야 한다.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에서 이를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갈조" 보냄은 피동이요 갈조는 능동이다. 보냄은 주권이 하나님께, 갈조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다.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가자지, 교회 대청소일이라 나도 가자지! 전도하는데 나도 가자지, 모든 교회행사에 근자에 흔히 들리지는 자원봉사에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 의지로 한다. 누가 나를 시키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자원이 피동이 아니라 자동이라 피동보다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도 없다 못한다.

오래 교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모든 일에 솔선으로 나서는 교인은 시원도 하고 목사로 일하게 쉽게 주어 주는 분이려 매우 귀하게도 여겨진다. 이렇게 잘하는 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체성이 강해져간다. 자신의 공이 쌓여짐을 느끼는지 순종하려는 것보다 명령하려는 경향이 있어진다. 차차 교회의 고참이란 생각도, 내가 수위란 의식이 강해져감이 보여진다. 보여지는 데서 그렇게 행사한다.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에 섰다 할 것이다. 교회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러까지 된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심지어 목사에게까지 그런 자세가 나타난다. 심지어 목사님 어디 심방가십시다, 뉘집에 누구에게 댈지다. 교회에 이만한 관심을 가진 이가 있다함은 고무적이기도 하나 교권을 쥔 자리에서 그런 권위를 쓰게까지 된 것은 크게 자신을 위하여 또 교회행정에 혼란이 오기도 한다.

단번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한 그 좋은 희생봉사에 자신이 항상 주체성 있게 이런 자세가 쌓이고 쌓여선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 지경에 이르는 것 같기도 하다. 혹은 사람됨이 언제나 위에서 살려는 그 심정에서이기도 하다.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인간성에서이기도 하다. 습관적으로 누적된 주체가 강해져졌는지 분신 사람됨이 그렇든지 이는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이 사실이다. 나의 이런 사실을 들에 '그런 일이 있고말고' 동조하시는 동역자가 있으리라. 교인 중에도 자신을 반성하는 이도 있으리라.

교회에서 명령식으로 주도하는 일이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누구보다 많다. 그러기에 "내가 이 교회" 이런 자신감도 그런 공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남도 사실이다. 다른 이도 시인할만한 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질서를 혼란케 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교회발전에도 크게 지해를 가져온다. 혹 교인 중에는 '모모 때문에 나는 교회를 옮겨야 하겠다'고 한다. 교역자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식이라 괴로움이 심화되게까지 이른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크게 손해가 오게 된다.

신앙생활은 누가 갈조 물으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보다 이사야의 대답이 귀하다. "나를 보내소서"(사6:8) 내 의지보다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할 뿐인이다. 이런 자세의 대답이다. 본체에 "능동보다 피동"이란 말의 내용이 이러하다. 내 의지가 어떻습니까? 아니라 '나는 보내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필요하신 곳에 보내시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명 하심에 그 명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명하시는 곳에 가야 한다. 거기 내 어떤 주권이 섞여선 안된다.

요나를 보아서 안다. 부름을 받았다. 거기 순종하였다. 그리고 갈 곳을 지시하셨다. 그곳은 가기 싫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할 일을 하자, 보내시는 이의 주권대로 아니라고 자기 판단이 거기 섞였다. 그 후는 너무 분명하다. 디더 피동으로 돌아와 니느웨로 가야했다. 거기 가서도 주신대로 저들에게 경고하였다. 자신의 경고한 말이 이루어짐에 주권자에게 항의를 한다. 요나의 의지가 되살아났다. 하나님께 항의한다. 있을 수 없다. 하극상은 군대에서도 항명이 되는데! 요나는 다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심물교수로 깨달았다. 교역자도 물론 솔선수범으로 피동에 살아야 한다. "나를 보내소서" 교인들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대행자이신 목사님의 시키심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 그 순종이 그 자신에 유익하고 교회에 덕이 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짐이 실제적이다. 누구나 자신이 능동으로 할 때 일이 쉽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 그 헌신 그 드리는 예물 다 좋은데 그것이 누적되면서 주권행사에 이르는 경우는 월권에 강권으로까지 나아가 사랑담에 얽게 되면 그 자신이 큰 오손이요 교회질서가 어지럽게 된다. 이런 면도 오랜 교회생활에서 얻어진 교훈이라 참고 되면 하는 마음이다.

나도 포함해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공중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시123:2). 이렇게 그 앞에 대령하고 기다림이 신앙인의 길이라 절대 주권자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명하신대로 보내 주세요의 태도가 있을 뿐이다. 교회봉사에도 목회자에게 '무슨 일을 지시해주세요요', '제게 시켜주세요' 능동보다 피동의 자세는 참으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리라.

(1996년, 1권)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b> 나침반교회, 남가주순례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복음장로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학교: 오전 9:00, 11:00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금.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b>남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토) 주일 6부예배: 오전 6:00(토)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6부예배: 오전 6:00(토)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성경(금): 오전 5:30 동요합창: 오전 6:30 EM 대학합: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11:00		<b>남가주순례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예배: 오후 1:30 영어학교: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수.목.예배: 오전 6:00(화-토)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목.요.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어학교: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00,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		<b>등문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학교: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30 3부 아침예배: 오전 11:00 4부 아침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들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b>드림 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영어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비전(18:30-19:00),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b>새천안교회</b>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b>미주영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베델인교회</b>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전 2:00(청년)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일) 금.요.예배: 오후 7:30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미연합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목.목.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어) 주일 6부예배: 오후 5:30 (화-토)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b>일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일.예배: 오후 6:0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회계기도대: 365일 24시간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어) 수.요.일.찬양: 오후 7:30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어) 주일 6부예배: 오후 5:30(영어) 주.요.예배: 오후 8:00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어) 주일 6부예배: 오후 5:30(영어) 주.요.예배: 오후 8: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복음으로 농촌 인신매매 막는다!

## 미션네트워크뉴스, 네팔선교단체 인신매매 근절과 치유 사역 소개

남아시아의 농촌지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미성년자 피해 사건이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구의 고원지대로 불리우고 있는 네팔은 아동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 중 하나다. 매년 7,000-10,000명의 네팔 소녀들이 이웃 나라인 인도로 팔려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소녀들은 매춘으로 빠지게 된다. 네팔 소녀들은 인도 외에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매춘 조직에 팔려가며 이렇게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는 9살 밖에 되지 않는 소녀들도 있다.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네팔 부모들에게 딸을 큰 도시나 다른 나라로 데려가 좋은 임금을 받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신매매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해 아내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해 소녀들을 데려가기도 한다. 소년들도 인신매매 피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소년들은 매춘 조직이나 서커스 단체에 팔려 가는

데, 이들은 오랜 시간의 노동과 적은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다.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부모와 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

을 것이며 좋은 임금과 교육도 받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데, 어떤 네팔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서커스 단체에 1,000루피에 팔기도 한다.

인신매매 조직으로 끌려간 어린이들이 실상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떠나 보낸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을 만날 수도 없고 소식을 듣지도 못하게 된다.

미국 선교단체(Christian Aid)와 동역하는 네팔의 한 선교단체는 이렇게 인신매매에 팔려간 소녀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선교회는 14년 전부터 네

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회의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있다. 이 교육 사역을 통해 8,000명이 넘는 네팔의 소녀들이 인신매매의 간교한 속임수를 알게 됐다. 또 이 선교회는 농촌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면하고, 딸들을 지키는 방법도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과 함께 이 선교회는 농촌 주민들에게 그리스도론을 전파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 선교회는 '크리

너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재 이 주택에서 10명의 어린이들이 머물며 상담과 성경공부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받고 있다.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소녀들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녀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아주 크다. 이러한 소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선교회는 소녀들에게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봄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피해 소녀와 여인 35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중 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 매년 7천-1만명 소녀들 인도에 팔려 매춘 구출하면 상담 성경공부 통해 정신적 치유

매매 조직원들은 부모와 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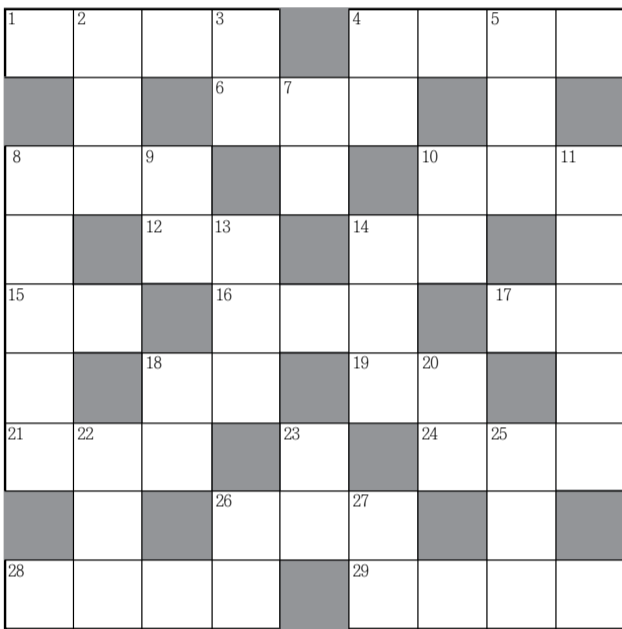
네팔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서커스 단체에 1,000루피에 팔기도 한다.

팔의 농촌 주민들에게 인신매매 실상을 알리는 사역을 시작했다

스천 에이드'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출된 소

### 십자말 • Cross Word (1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1.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 66장으로 되어있음.
4. 메네메네 테켈 오오오(단5:25).
6. 바다에서 나는 온갖 물건.
8. 달걀의 노른자위 말고...(욥6:6).
10. 솔과외의 상록교목이다. 열매는 송자라고 함(사55:13).
12.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봄(겔20:35).
14. 서로 마주 대함(마18:15).
15. 벤엘의 본 이름(창35:6).
16. 제사장의 직무(출31:10).
17. 먹을 수 있는 초목의 열매(창2:16).
18. 1년이 365일인 보통의 해.
19. 장교(눅22:4).
21. 잇사갈의 한 영토(수19:20).
24. 대를 목본(木本)으로 보고 일컫는 말.
26. 헤브론의 딸들이며 족장(대상23:19).
28. 병 없이 오래도록 삶(고사성어).
29. 다윗의 아들(삼하5:15).

#### <세로 푸는 열쇠>

2.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서 난 사람(히12:8).
3. 지금의 지중해를 일컫는 말(신11:24).
4. 井(요4:1).
5. 포로 후 느디남인의 한 분파의 족장(느7:47).
7. 궁벽한 산속. 두메(삼상23:14).
8. 안전한 창고와 구원의 영광장성(계6:11).
9. 뛰어나고 훌륭한(사93:4).
10. 자막대기의 준 말.
11. 뽕나무과에 딸린 낙엽관목(마21:19).
13. 매7년마다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해(신15:2).
14. 계속해서 숙직을 하는 사람(욘27:18).
18. 고요하고 안온함(왕하11:20).
22. 임금을 모시어 호위하는 군인(막6:27).
23. 임으로 붙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대하15:14).
25. 이 사람의 권속 중에 교인이 있어 바울이 문안함(롬16:11).
26. 같은 수(출5:18).
27. 겐 사람 헤벨의 처(사4:18).

#### 십자말 정답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침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후 8:30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침양: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침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매주 주, 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영영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수요침양: 오후 8:3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영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침양: 오후 8:45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침양: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영양예배: 오후 8:30 금요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벤엘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타미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부: 오후 1:30 영영영양예배: 오후 11:00 영 어 예 배: 오후 11:00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b>살렘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침양: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b>엘파소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침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2:00(영/한)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템피파조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주일 6: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영영양: 오전 11:00 영영영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한) 오전 5:30(토) 오전 6: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침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아가페선교침례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침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 경건주의(Pietism)와 현대 선교에 대한 소고 (하)



**박시경 목사**  
(그레이스신학교 교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시작되었고, 존 칼빈의 개혁운동의 승계가 1530년대 중반부터라고 본다면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1600년대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에서 개혁운동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물론 개톨릭교회로부터 오는 조직적인 박해는 잠시도 그 강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개혁운동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개톨릭교회의 탄압은 종교재판소를 강화하고 교회내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교 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발발한 30년 전쟁(1618-1648)은 독일의 인

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20세기 선교에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한 여러 형태의 갱신운동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 17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 운동, 또한 부족한 부분을 보았다.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신앙이 주관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뒤 따른다.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교제, 탈 세속적 경향, 더 나아가서는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초대교회 때 몇몇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운동은 신비주의라는 부산물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신비주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판론자들은 경건주의가 지나친 영성 강조로 인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편협한 신앙을 조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 당시 경건주의자들의 행보를 보면, 저들은 깊은 차원의 경건주의를 생활에서 실천하며, 자신들의 영적인 비전을 세계 선교에서 찾았다.

개톨릭교회가 식민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교정책을, 루터교회가 매우 소극적인 선교정책을 펴나갔다면, 경건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복음에 헌신한 성

## 개인의 구원, 기도중심의 경건 강조, 성경공부에 집중 국가간 선교협력체계 구축 타문화권선교의 전형 보여

구를 격감시켰고(1600만명→600만명) 극심한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사회적 혼란은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는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 지도자의 무기력,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 귀족과 관료들의 특별석이 마련되는가 하면, 농민과 노동자들은 일반석에 앉게 되는 계급의식도 만연해 있었다. 교회내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독일어권(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사상적으로는 17세기에 나타난 합리주의, 계몽주의적 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통 기독교에 대한 회의의 불바람을 일으키게 했다. 인간 이성의 논리에 기반 한 이러한 사조는 그 당시 유럽의 신생 개신교 교회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경건주의는 개인의 구원, 기도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17세기 유럽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건주의는 매우 낯설고 주의가 요망되는 특별한 집단 운동쯤으로 인식되었다. 만일 특별한 집단인 경건주의자들이 힘을 결집해 반사회 운동이라도 할지 모른다는 의심도 당국자들은 갖고 있었다.

인간 이성이 강조되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반발하여 경건주의자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보았고, 그 감정의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했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은 침체되어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성을 갈구하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수많은 호응자들을 얻으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일에 이 운동은 영국의 감리교 운동, 미국의 대

경적인 방법으로 타문화 선교를 감당했다. 그것도 국가 간 선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타문화권 선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덴마크-할레 선교(Danish-Halle Mission)는 덴마크와 독일 할레대학의 연합 선교단체로서 인도의 트란쿠바 지역(포르투갈 식민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개 교회 중심, 개 교회 중심의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국제선교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제선교단체들은 한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구성원(선교사)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집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반면에 덴마크-할레선교회는 덴마크 왕실과 경건주의 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레대학과의 연합선교는 몇몇 개인들이 주도하는 현대 국제선교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것도 선교에 대한 개념정리조차 어려웠던 17세기에 선교의 선진 기법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 100년 동안 개혁의 추진력이 힘을 잃어가고 사회적 혼란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경건주의 운동이 개인의 영성, 선교에 대한 성실한 책임감,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것을 고려해 볼 때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은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 갱신과 선교의 활성화에 한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다.

(끝)

# GKYM Fest

## 세계한인청년선교축제 10월 31일 1차 마감 자원봉사자훈련위해 각 지역서 미니 지킴 열려

올해 말 열리는 뉴욕 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인청년선교축제(GKYM Fest)를 앞두고 지킴 지역 컨퍼런스(Mini-GKYM)가 미주내 각 곳에서 열리고 있다. 또 1차 등록마감이 10월 31일로 다가왔다.

미니 지킴은 일일 선교부흥회로 로체스터 본 대회 개최에 앞서 지역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해 GKYM 운동을 알리고 예배를 통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헌신하도록 하는 자리다. 이미 지난 9월 26일과 10월 11일, 22일에 각각 캐나다 런던과 버팔로, 뉴저지 지역에서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GKYM 운동의 목적과 비전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대회전까지 미니 지킴이 더 많은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자: 10월 24일(목) 저녁 6시, The Downtown Mission 스포츠트리울: 25일(금) 저녁 7시, 몬트리올사랑교회(담임 김성수 목사) △킹스턴: 26일(토) 오전 11시, 킹스턴한인교회(담임 황성광 목사) △오타와: 27일(주) 저녁 6시30분, 오타와한인교회(담임 강석제 목사) △루이빌: 11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새한장로교회(담임 김상현 목사). 이외에도 빙햄튼, 보스턴, 워싱턴DC 지역에서도 미니 지킴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로체스터'13대회를 위한 첫 번째 스텝&자원봉사자 모임이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지난 GKYM 대회에 한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고 세계 선교비전을 품고 GKYM 선교운동에 참여해 스텝과 자원봉사

자로 헌신하기 원하면 스텝으로 참가할 수 있다. 스텝은 대회를 위한 모든 사전 준비와 대회기간 동안의 모든 진행을 맡아 하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스텝을 도와 대회를 섬기게 된다.

스텝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야는 행정, 미디어, 홍보 등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은 통제 및 보안을 담

양한 분야의 예배자들을 모집한다. 오디션 일정은 이메일(rochestergkym@gmail.com)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잔양코러스는 뉴욕에서 연습할 수 있는 10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역시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GKYM FEST는 탁월한 언어능력과, 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차세대를 일깨워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게 하는 운동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3,300개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 자신의 삶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게 하는 운동이다.

2008년 나이아가라를 시작으로, 2009년 로체스터, 2010년 샌디에고, 2011년 샌디에고와 로체스터, 또 2012년 시카고에서 열렸다. 그리고 올해 로체스터'13과 동시에 서울'13

까지 열리는 현 시점에는 더 이상 한인 디아스포라뿐 만이 아닌 전 세계 디아스포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남은 과제를 이루는데 정진하고 있다.

지킴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등록비(숙식포함, 4인1실 기준 외의 방을 원하실 경우 추가비용 발생)는 200달러(10월말), 250달러(11월30일), 300달러(12월15일)이며 자원봉사자, 스텝,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목사/선교사 자녀는 150달러.

(정리: 유원정 기자)



당하는 내/외부 진행팀 등이 있다.

스텝 등록 희망자는 스텝 헌신서를 작성하고 목사 사인을 받아야 한다. GKYM웹사이트(GKYMFEEST.COM)에 들어가서 스텝/자원봉사자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텝 모임 일정은 10월 27일, 11월 24일, 12월 15일 오후 7시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 자원봉사자 훈련은 11월 10일, 12월 8일, 12월 25일 오후 7시 뉴욕총신교회에서 하게 된다.

또 퍼포먼스팀도 모집한다. 음악, 춤, 뮤지컬, 연극 등의 다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어 온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심의 공동체

# 새장로교회 2013 가을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 새장로교회(구: 성림한인장로교회)에서 김풍운목사님을 모시고 가을부흥성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이 귀한 가을말씀잔치에 초청합니다.

원영호 담임목사와 새장로교회 교인일동



- 주제:** 건강한 신앙 (고후 13:5)
- 강사:** 김풍운목사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 일시:** 2013년 10월 31일-11월 3일
- 장소:** 새장로교회 본당 (구: 성림한인장로교회)

날짜	새벽(5시 45분)	저녁(7시 30분)
10/31		건강한 성도 (행 10:1-8)
11/1	건강한 마음 (사 40:3-5)	건강한 교회 (눅 19:1-10)
11/2	건강한 직원 (삼상 2:30)	건강한 믿음 (막 10:46-52)
11/3	주일 11시 예배: 건강한 가정 (잠 14:1)	

새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저녁 8시	중고등부/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6시	금요모임: 저녁 8시



미국장로교 새장로교회 (담임: 원영호목사)  
한미노회 The New Presbyterian Church

970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9(구: 성림한인장로교회) Tel:(323)665-8643